

Brome 환경포럼 BSEF 서울 개최

11월5일 조선히텔에서 2003 BSEF 열려 ... 화학기업의 환경의무 논의

화재발생 시 전자제품 및 가구의 연소를 지연시키는 화학물질인 브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결성된 브롬 과학환경포럼(BSEF)이 2003년 11월5일 웨스틴 조선히텔에서 <2003 BSEF 서울 세미나>를 개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BSEF(Bromine Science & Environmental Forum) 세미나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이자 현 행정자치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연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 발표는 >유럽에서의 폐가전지침(WEEE) 시행 이후의 진행상황 >전자업계의 환경적 의무 >브롬 난연제의 과학적·법규적 진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유럽 난연제 산업패널(EBFRIP)의 디에테르 도르만 박사, HP의 페르디난드 헤르만, 그리고 BSEF 회장인 데이비드 샌더스가 한국을 방문해 발표에 참석한다.

2002년 BSEF 세미나 행사



BSEF는 1997년 10월 Albemarle Corporation, Dead Sea Bromine Group, Great Lakes Chemical Corporation과 Tosoh Corporation 등의 회원사가 브롬제품의 과학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결성한 포럼으로, 현재 브롬제품업계의 국제적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BSEF 포럼 결성 이래 서울(한국), 도쿄(일본), 타이페이(타티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3개국에서 매년 BSEF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BSEF 홍보 대행사인 인트넷(전화 02-516-4007)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5>